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

말씀 : 요한일서 2:3-27

요절 : 요한일서 2:9,10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우리는 지난 주 ‘성도의 사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성도의 사귄은 빛 되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영적인 사귄이요, 생명의 빛과 기쁨이 넘치는 사귄입니다. 이 사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서로 사귄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빛 되신 하나님과 사귄이 있다 하는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실제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 시간 계명에 순종하여 형제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을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I. 하나님과 교제의 구체적인 방법 - 형제를 사랑하라(3-11)

첫째, 계명을 지키라(3-6)

3-6절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과 예수님을 아는 것 사이에는 무슨 관계가 있는지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3,4) 우리가 어떤 사람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인격적으로 아는 자인지 아니면 다만 명목상의 신자일뿐인지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그 사람이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 지로 분별할 수 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과 사귄이 있다고 하면서 나는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였다고 하면서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는 자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머릿속의 지식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고 아는 참된 지식이라면 그 지식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지식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되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무감각하게 살던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고자 하는 거룩한 소망을 갖도록 변화시킵니다.

3-6절 사이에는 '안다'는 단어가 4번이나 나옵니다. '안다'는 단어에는 헬라어로 '기노스코'와 '오이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오이다'는 초경험적이지요 직관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고 '기노스코'는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본문에서 '안다'는 단어는 '기노스코'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피상적인 지식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 인격적으로 체험하게 된 실제적인 지식입니다. 이는 과거에 한 번 안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현재도 그 앎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당시 교회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아 지식을 중시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동양의 신비 종교의 영향을 받아 감정을 중시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순종이 없고 실천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서는 결코 알 수 없

습니다.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내면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죄의 낙을 즐기며 이기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약2:26) 말씀대로 행하지 않을 때 바리새인과 같이 이중생활을 하며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아는 자는 예수님을 본받고자 하는 소원 가운데 기쁨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자 힘써야 합니다. 이때 어떤 은혜를 누리게 됩니까?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5,6)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와 높이와 깊이를 깨닫게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할수록 주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내면이 변화되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여 넘어질지라도 실제 삶에서 말씀대로 행하고자 영적인 투쟁에 힘써야 합니다.

둘째, 옛 계명과 새 계명 - 형제를 사랑하라(7-11)

그러면 우리가 힘써서 지켜야 할 계명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7) 이 말씀은 새 계명으로도 볼 수 있고 옛 계명으로도 볼 수 있는 계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계명은 무엇일까요? 옛 계명은 십계명으로서 한 마디로 요약하면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신6:5,레19:18) 그러므로 사랑에 대한 계명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구약 시대부터 있었던 옛 계명입니다. 그런데 8절에서는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쓴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34,35절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과 연관이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새 계명은 과거에 없었던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을 통해 옛 계명을 실천하시므로 새로워졌고 새로운 표준으로 제시되었다는 점에서 새 계명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은 옛 계명과 비교해서 범위와 깊이에 있어서 차원이 다릅니다. 옛 계명의 사랑의 범위는 유대인에게 한정되어 있어서 죄인이나 이방인들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저주와 심판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들과 이방인, 더 나아가 모든 족속을 사랑하셨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사랑이 이방인에게까지 전파되었습니다. 또한 옛 계명의 사랑의 깊이는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는 차원입니다.(마5:43) 하지만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며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마5:43,44) 사람들은 이기심 때문에 사랑해야 마땅한 대상조차 사랑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원수, 핍박하는 자들은 저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눅23:34) 이처럼 사랑의 계명이 새로운 계명이 된 것은 사랑의 본질이신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죄인들을 섬기시고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 사랑을 완성하심으로 사랑의 표준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9-11절은 빛 가운데 거하는 것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는가를 가르쳐 줍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9) 여기서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라는 말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라는 뜻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강조한 ‘하나님과

사귀이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 안에 산다고 하면서’라는 말씀입니다. 빛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도 알고 하나님의 사랑도 압니다. 당연히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형제를 미워한다면 그 사람은 지금까지도 어둠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즉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 삶에서 사랑의 실천이 없는 사람은 허울뿐인 신앙에 불과하고 실상은 하나님과의 사귀이 없는 것입니다. 11절에서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기 때문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면 영적인 분별력과 판단력을 상실하여 형제의 장점보다 약점을 보고 정죄하고 판단하게 됩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형제가 하는 모든 것이 마음에 안 듭니다. 말하는 것 먹는 것 걸음걸이 잠자는 모습 심지어 웃는 모습까지 밋게 보입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죄인 줄 알고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하지만 막상 그 형제를 보지만 하면 자신도 모르게 미운 감정이 되살아납니다. 형제를 미워하게 되면 마음에 평강과 기쁨이 사라집니다. 눈을 감아도 미운 감정이 떠올라 잠이 오지 않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면 결국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미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빛을 차단하는 암막(暗幕) 커튼과 같습니다. 마음에 미움의 커튼을 치고 있으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막히고 형제와의 교제도 막히게 됩니다. 미워하는 마음을 회개함으로 미움의 커튼을 걷어내야 하나님으로부터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빛을 공급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형제를 사랑하는 자의 삶은 어떠합니까?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10) ‘**거리낌**’(skandalon)이란 ‘넘어지게 하는 것, 걸림돌’을 뜻합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는 것, 실족하게 하는 것, 그래서 죄에 빠지게 하고 낭패를 당하게 하는 것을 가리키지만 여기서는 ‘자기 스스로’를 넘어지게 하고 낭패를 당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빛 가운데 거하여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은 물론 타인에게도 걸림돌이 될 만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성을 맺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에 충만하여 참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사귀이 있다는 확실한 증거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미워하지도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는 어불성설(語不成說)입니다. 사랑과 미움은 정반대의 현상이므로 중간이 없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것은 미워하는 것이요, 실상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것입니다. 사랑은 성경지식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증명하였듯이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행동하는 사랑입니다. 요일3:17절은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하나님과의 사귀이 있는 자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거짓말 하는 자입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요일4:20,21) 성도의 교제에 있어서 비록 미워하게 하는 자가 있을 수 있지만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그를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형제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①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형제를 섬기는 것입니다.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의 죄악 된 본성으로는 미운 짓을 하는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려면 나에게 베푸신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낮아져 섬기고자 투쟁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 때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이들은 잠시 후면 예수님을 팔고 부인하고 도망갈 자들이었지만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기심에 찌들고 죄로 병든 제자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영접

하시고 섬김의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하셨는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요13:14)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형제의 연약함과 허물을 보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의 발을 씻어 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행위를 결정짓는 마음의 태도입니다. 사랑하면 어떤 모양으로든지 섬기는 행위로 나타나야 합니다. 현재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구한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물을 드린다면 하나님이 받아주시겠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먼저 형제와 화목하길 원하십니다.(마 5:23,24) 우리가 지금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나를 섬겨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형제를 있는 모습 그대로 영접하고 사랑하고 섬기기를 기도합니다.

② 형제를 사랑하되 내가 먼저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사 찾아오신 것입니다. 내가 아직 연약할 때에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시고 나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롬5:6-10)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면 이 사랑이 내 마음에 늘 살아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나도 먼저 형제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벤저민 프랭클린(Benjamin Franklin, 1706~1790)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사랑 받고 싶다면 사랑하라, 그리고 사랑스럽게 행동하라.” 형제를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사랑해주길 바라는 것은 철없는 어린이와 같습니다. 나는 상대방에게 미움 받을 것을 하면서 사랑받길 원하는 것은 도둑놈 심보입니다. 하나님 역사를 섬기다보면 불화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때 시시비비(是是非非)를 가려서 상대방이 먼저 용서를 빌지 않으면 나도 용서하지 않겠다고 하면 성령의 그릇이 깨져 동역할 수 없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과거 성격이 불같아서 자신들을 영접하지 않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불을 내려서 멸해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하기도 했습니다. 수제자인 베드로와는 누가 크냐며 경쟁하던 자였습니다. 이런 그가 사랑의 사도로 변화되었습니다. 베드로를 복음의 동역자로 영접하고 합심기도하며 복음전파 역사에 헌신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은 아낌없이 주고도 혹시 부족한 것이 없는지 살펴보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순수하게 무조건적으로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습니다.(행20:35)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되 먼저 사랑하기에 힘쓰므로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길 기도합니다.

우리는 양들은 사랑하지만 가장 가까운 믿음의 동역자들은 사랑하지 못하고 ‘바쁘다’ ‘상대방은 나보다 더 바쁜 것 같다’ 핑계 대며 사귀을 나누지 못하고 외롭다고 하소연합니다. 그러나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에 순종하고자 하면 기도로 전화로 카톡으로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서로 관심을 갖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상대방의 입장에 처해 보지 않고는 다른 사람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부자가 가난한 자를 가난한 자가 부자의 마음을 잘 모릅니다.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배부르면 포만감 때문에 다른 사람의 배고픔을 느끼지 못합니다. 내가 따뜻하면 안락함 때문에 다른 사람의 고통을 보지 못합니다. 그것을 아는 길은 내가 직접 배고픔의 고통을 맛보고 벌거벗음의 아픔을 느껴보아야 합니다. 이로 인해 서로 원수가 되어 으르렁되기보다는 서로가 대화함으로 서로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할 때 해결점은 시작됩니다.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아픔을 이해할 때 형제 사랑은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것을 심각한 죄로 여기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미움은 자연스러운 감정이 아니라 회개하고 극복해야 할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형제에게 화를 내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자 할 때 먼저 형제와의 막

힌 문제를 해결하고 오라고 합니다. 그만큼 형제와의 갈등 문제를 큰 죄로 여긴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하였습니다.(요13:35) 교회마저 서로 미워하고 분열하면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맞본 자는 형제를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이 있는 모임에 사람들은 관심을 갖고 찾아옵니다. 올해 우리 7부 교회 공동체가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II. 하나님과 교제에 있어서 경계해야 할 것 -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12-17)

13,14절에는 세 부류의 신자들이 나옵니다. 아버지들, 청년들, 아이들에 대해 언급합니다. 이것은 교회가 다양한 계층과 세대로 구성되어 있음을 말해줍니다. “아버지들이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으로 청년들이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이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들을 알았음으로 아버지들이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으로 청년들이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13,14)

‘아버지들’은 교회 내에서 지도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태초부터 계신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깊이 만나고 신앙적으로 성숙한 신자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신앙경륜이 많아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영적인 지혜와 은사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아버지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깊은 관심을 갖고 섬기며 주와 복음역사를 위해 헌신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기 위해 합심동역하고 기도하며 영적인 자녀들을 양육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현장에서 발로 뛰지는 않지만 성숙한 인격과 좋은 영향력으로 교회에서 영적 방향을 제시하고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합니다.

‘청년들’은 교회에서 하나님 역사를 열정적으로 섬기며 사탄의 세력과 앞장서서 싸우는 복음의 일꾼들을 말합니다. 청년들은 여러 분야에서 가장 정열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섬기고 악의 세력과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무엇보다 청년의 특징은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강해질 수 있습니까? 사탄과의 영적 싸움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 곧 성령의 검입니다. 말씀의 무기로 무장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영적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사탄과 싸워 이기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요16:33b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죄와 사탄 권세를 파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승리가 보장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사탄의 강한 세력이 나를 넘어뜨리려 해도 승리하신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붙들고 싸울 때 능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초보 신자들을 가리킵니다. 신앙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새 신자들을 말합니다. ‘아이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역을 통해 죄 사함을 받고 되었고 동시에 예전에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두렵기만 하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15-17절은 흔히 기독교(基督教) 경건주의(敬虔主義)의 대헌장(大憲章)으로 불리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귀를 갖는 성도들이 세상에 대해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해 가르쳐 줍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15) 여기서 ‘세상’(kosmos)이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모든 특성을 지니고 있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 없이 죄로 물들어 있는 피조 세계 전체를 가리킵니다. 곧 악한 자가 지배하고 있으며 온갖 욕심과 미혹을 통해 사람들을 유혹하고 죄 짓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들을 통틀어 일컫습니다. 세상에는 사랑할 만하고 소유하고 싶고 즐기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게 됩니다.(15)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사탄은 세상을 사랑하도록 유혹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빼앗아 갑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줄어들고 결국은 없어지게 됩니다.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듯이 세상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공존할 수 없습니다. 빛과 어둠, 의와 불의가 공존할 수 없듯이 세상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공존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가치관과 죄를 미워하시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면서 동시에 그가 미워하시고 그에 반대되는 것을 사랑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마 6:24)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심령에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됩니다.

둘째, 세상의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16)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육신의 정욕’이란 타락한 사람의 본성으로 육체적인 쾌락들을 탐닉하는 기질과 성향을 말합니다. 죄악된 육신의 욕심 욕구 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육신의 정욕은 생리적인 욕구가 아니라 죄성(罪性)을 따라 일으키는 욕망으로 육신의 쾌락을 자극하고 선동하여 감각에 지배되는 삶에 빠지게 합니다. 감각에 지배되는 삶을 말합니다. 음식을 절제하지 못하는 탐식, 사치에 빠진 낭비, 정욕으로 인한 쾌락의 노예, 탐심에 기초한 이기적인 삶 등을 말합니다. 이것에 빠지면 식욕, 성욕, 수면욕, 낭비욕, 탐욕의 노예가 되어 무절제한 삶을 살게 됩니다.

‘안목의 정욕’은 눈으로 짓는 모든 죄를 말합니다. 눈으로 보는 것은 그대로 뇌신경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자극도가 매우 강합니다. 안목(眼目)은 눈을 뜻하는데 눈이 무엇을 욕구하기에 죄악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단지 사람의 눈이 보고 싶어 하는 욕구를 나쁘다고 정죄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경치를 구경하거나 관광하는 것 자체를 죄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눈은 옛날부터 죄악된 욕구와 밀접히 관련된 것으로 이해되어 왔습니다. 눈은 육체와 마찬가지로 죄를 짓는 도구로 많이 사용되어 왔습니다. 하와이는 계명의 말씀을 버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다가 안목의 정욕에 빠져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그 열매를 따먹고 범죄 하여 죽게 되었습니다. 다윗도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다가 정욕의 죄, 살인죄 등을 지었습니다. 스마트폰을 소통하고 유익한 정보를 수집하는데 사용하면 참으로 유익합니다. 하지만 음란사이트나 동영상을 보는데 사용하면 정욕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영적으로 황폐하게 됩니다.

‘이생의 자랑’은 자신이 소유한 물질뿐만 아니라 명예 권세 업적 등을 통해 자기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야망과 명예심과 허영심을 말합니다. 마음이 부풀어 올라 자꾸만 빠지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교만의 유혹입니다. 우리말 번역에서 ‘이’는 원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생의 자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生)이란 무엇일까요? 여기에 사용된 ‘비오스’(bios)는 영적인 생명을 나타내는 ‘조에’와 구별됩니다. ‘비오스’는 모든 인간이 유지하고 있는 생물학적인 생명, 생활을 가리키며 이것은 또한 생활, 수단, 재산, 부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생의 자랑’을 곧 ‘자랑하는 생활 방식’으로 이해합니다. 자랑하고 칭찬 받고자 하는 유혹은 아무도 뿌리칠 수 없는 최고의 유혹입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은 이런 것에 마음을 내어 주게 되고 점차 영적인 소원을 잃게 됩니다.

셋째, 세상의 것들은 다 지나가기 때문입니다.(17)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17) 세상의 것들은 일시적인 것들로 결국에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약4:14) 세상에 있는 것은 마치 사탕 발린 독약과 같습니다. 이것들은 겉으로 볼 때 멋있고 아름답고 달콤하게 보이지만 이는 순간적이고 또 여기에는 우리를 파멸시키는 독약이 묻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것에 미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1923년 미국 시카고의 한 호텔에서 중요한 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이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은 당시 미국의 경제를 장악하고 있었던 9명의 재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모인 목적은 서로 협조하고 우의를 다짐으로 영구히 그 부귀를 누리겠다는 것이었습니다. 25년 후 뉴욕 타임즈의 한 기자가 그때 회의에 참석한 재벌들의 현주소를 추적해 보았습니다. 놀랍게도 하나 같이 몰락해 있었습니다. 강철계의 대부는 파산해서 죽고 비료업계의 대표는 부정축제가 발각되어 파산했습니다. 가스업계의 대표주자는 정신병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처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순식간에 다 지나가고 맙니다. 우리의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아름다움과 영광은 들의 꽃과 같습니다.(사40:6-8) 풀이 싱싱하고 꽃이 아름답지만 결국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명예와 부와 권세도 하나님이 혹하고 불어버리시면 한 순간에 다 날아가 마르고 시들어버립니다. 사도 베드로는 세상에 있는 것의 본질을 잘 알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벧전 1:24,25) 세상은 다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은 영원토록 거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소유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해야 하겠습니다.

III. 적그리스도의 출현에 대한 경계와 권면(18-27)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18) 말세에는 많은 적그리스도(antichrist)가 나타납니다. 말세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때부터 재림할 때까지를 말합니다. 지금 세상에는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말 그대로 그리스도의 적, 원수를 말합니다. 적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킬 수 없습니다. 적그리스도는 많은 표적과 이적을 행하

지만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거룩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스스로 그리스도인 것처럼 위장하지만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속이고 죽이는 자입니다. 적그리스도에 속하면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게 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과 어떻게 다릅니까?

적그리스도는 믿는 자들과 함께 속하지 못하고 교회 공동체를 떠나버립니다.(19)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정하고 믿음의 공동체를 파괴시키려 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공교회를 부정합니다. 이단의 특징은 공교회의 공동체를 떠나고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들만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생각하고 자신들만 구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합니다. 그리스도로 시인한 자는 성령의 기름부음을 받습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진리 되신 예수님을 알고 거룩한 삶을 살고자 노력합니다. 서로 사랑합니다. 양자의 영을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십니다. 적그리스도는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합니다. 예수님은 실패하고 자신이 온전한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면 진정한 죄사함과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20-23)

그렇다면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사도 요한은 이런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경계하며 이들의 미혹을 이길 수 있도록 어떤 적극적인 권면을 합니까?

첫째,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24-26)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의 안에 거하리라”(24) ‘처음부터 들은 것’이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십자가와 부활의 순수한 복음입니다. 이 세상과 적그리스도는 끊임없이 우리가 처음부터 들은 순수 복음을 빼앗고 이단적인 사상과 세속적이고 인본적인 신앙을 주입하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지키고자 깨어 근신하며 투쟁해야 합니다. 깨어 투쟁하며 지키지 않으면 처음부터 들은 것을 다 빼앗기게 됩니다.

둘째,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27)

“너희는 주께 받은바 기름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27) 참된 성도들 안에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그의 기름 부음 바 된 성령께서 적그리스도를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줍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지혜롭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거짓된 것과 참된 것을 가르쳐 주시며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오직 주님 안에 지속적으로 거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주님과 교제를 지속하려면 구체적으로 계명의 말씀에 순종하고 서로 형제 사랑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소극적으로 죄를 범하지 않는 정도를 넘어서 적극적으로는 주의 계명에 순종하며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적그리스도를 경계하고 주께 들은 복음을 지키고 주안에 거하기 위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취해 살아가느라 몹시 바쁘지만 주께서 우리의 심령에 주의 사랑의 빛이 충만하게 하셔서 형제와 자매를 뜨겁게 사랑하는 7부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주시길 기도합니다.